

적자 기업에서 'AI 핵심 파트너'로... 현장에서 미래를 보다

SK하이닉스의 대변전 AI시대의 총아로

① 최태원 회장의 베링

'적자기업' SK하이닉스가 AI 시대 핵심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출발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 통신과 에너지·화학을 넘어 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던 그는 업황 침체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으며 그 승부수는 15년이 지난 지금 SK그룹의 가장 강력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회사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8.1% 늘어난 52조 5763억원,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05.5% 늘어난 37조 6103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분기 매출이 50조원, 영업이익이 30조원을 넘는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4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의 성장 뒤에는 최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최 회장은 미래 성장 산업 투자 중 하나로 SK하이닉스(구 하이닉스 반도체)인수를 단행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처음 도전한 영역은 아니었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선경 반도체



지난 3월16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2026'에서 SK하이닉스 전사부스를 찾은 (왼쪽부터) 엔비디아 젠스 황 CEO와 SK그룹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2010년 전문가와 반도체 공부모임
3조4267억 투입해 하이닉스 인수
모바일 중심 재정비로 흑자 전환
2013년 세계 최초 HBM 개발성공

를 설립하며 진출을 추진했으나 제2차
오일쇼크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그룹의 '미완의 꿈'을 다시 꺼내 든 최 회장은 인수에 앞서 2010년 전문가들을 서울 모처로 초청해 반도체 공부 모임을 꾸렸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하이닉스 인수의 전략적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침체에 빠져 D램 가격이 연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었으며 하이닉스 역시 연간 2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최 회장은 시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3조 4267억원을 투입해 하이닉스 인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 곧바로 현장부터 챙겼다. 당시 외부인 없이 100명의 임원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현장에서 해답을 찾은 그는 이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엔지니어 출신 CEO들을 전면에 배치했으며 연구개발과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한 수조원대 투자도 과감

히 말했다.

SK를 만난 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회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급속히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던 IT 산업 흐름에 발맞춰 모바일 메모리와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보다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2년 3분기에 회사는 흑자 전환으로 비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내년 용인 클러스터 팹 오픈 예정 美 'AI 컴퍼니' 설립 추진 계획 혁신기업 투자·협업... 시너지 연계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D램을 4단으로 쌓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고 전력 소비는 40% 이상 낮췄다.

초기에는 새로운 적층 구조와 상용화 가능성을 둘러싸고 HBM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리사 수 AMD CEO가 미국에서 열린 E3

게임쇼에서 "HBM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그래픽 카드"라며 신제품을 소개하자 기술적 의구심도 단숨에 불식됐다.

최 회장은 HBM을 비롯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SK그룹은 매년 조 단위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고 2015년 M14 준공을 시작으로 신규 생산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투자는 현재진행형이다. 회사는 오는 2027년에는 용인 클러스터 팹을 오픈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총 4개 팹으로 구성되며 각 팹이 6개의 M15X 팹을 합친 것과 같은 규모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의 도전은 메모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미국에 AI 솔루션 회사인 'AI 컴퍼니'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BM 등으로 입증한 AI 메모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AI컴퍼니를 통해 AI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AI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들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여기서 확보한 역량을 SK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국내 독자기술 '첨단대체시험법', 글로벌 규제 돌파구 모색

'K-NAMs' 공식 출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내 22곳 산·학·연 전문기관 집결 플랫폼

국내 독자 기술로 새로운 글로벌 첨단 대체시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22개 이상의 산·학·연 전문기관이 집결한 첨단 대체시험 플랫폼 'K-NAMs(Korea-New Approach Methodologies)'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오가노이드 및 생체모사칩을 의약품 개발 도구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동물실험에서 대체



(왼쪽 세번째부터)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 허정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시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23년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2.0) 시행으로 신약 개발 시 동물실험 의무를 공식 폐지했다. 유럽 EMA도 대체 시험법 우선 적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순차 도입 중이지만 표준화된 검증 체계와 규제 적합

성 마련이 늦어져 산업 현장 적용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K-NAMs 플랫폼'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시험법의 표준화 ▲규제 적합성 검증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능 체계를 갖춘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다. 오가노이드, 생체모사칩, 인공지능(AI) 기반 분

석기술 등 첨단대체시험 전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적 완결성과 더불어, 기술개발부터 표준화, 상용화에 이르는 K-NAMs 생태계 조성을 표방한다.

K-NAMs 플랫폼은 '글로벌 NAMs 컨퍼런스'에서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한국형 신약개발 혁신 기술평가방안' 마련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에는 기술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들이 참여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학계에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 참여해 공신력 있는 비임상 평가와 원천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에 오가노이드 전문기관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비임상 검증 전

문기관인 ㈜프리클리나와 국내 대표 AI 기업인 ㈜아론터어, ㈜퀀텀인텔리전스 등이 합류해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규제과 학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애니멀프리니셔티브 등 비영리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K-NAMs의 국내외 규제기관 공조 및 대중인식 확산에 나선다. 또 글로벌 중개 전문 기업인 독일 람다바이오로직스 등과 협력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안착을 돕는다.

K-NAMs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K-NAMs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외 우수한 첨단대체시험법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시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국내 혁신 기술들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metro

김정관 "한미 전략투자 예비협의, 국익 부합 방향으로 진행"

(산업통상부 장관)

美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 나선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과 국내 산업 활성화를 연결하는 '전략적 투자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현지시간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순방 중 6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 장관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기틀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금번 방미 시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 앞서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해 왔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 결과가 실제 투자 집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이란, 4주 만에 걸프국 공격 재개

>> 1면 "선박 피격..."서 계속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 (우리의) 해방작전과 관련이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그곳(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임무(작전)에 가담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지난 3월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만 주변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종용이다. 전장에 한국 등 우방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도를 다시 내비친 것.

이란은 약 4주간 중지했던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UAE 정부는 이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습에 푸자이라 석유화합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도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우,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으나 UAE 측 발표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